계명대학교 AI 활용 가이드라인

교육, 연구, 행정 분야 통합 운영 가이드라인

계명대학교 AI정보처

[2026. 09. 01.]

본 가이드라인은 계명대학교 전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AI 공식 기준입니다.

제정 취지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대학의 교육, 연구 및 행정 전반에서 변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AI는 아이디어 탐색, 초안 작성,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그 활용 범위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나, 사실 오류(Hallucination), 편향성,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연구윤리 위반 등 중대한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성은 유네스코(UNESCO), 국제출판윤리위원회(COPE), 미국 국립보건원(NIH) 등 국제기구와 연구윤리 관련 기관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AI 활용 시 **인간의 최종 책임, 투명성, 정확성 검증, 연구윤리 및 권리 보호 원칙**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명대학교는 대학 구성원이 AI를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제정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2026. 1. 22.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신뢰 가능한 AI 활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수립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AI 활용을 획일적으로 장려하거나 일률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대학의 핵심 가치인 **학문적 진실성, 연구의 신뢰성, 행정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준입니다.

우리 대학의 AI 활용 방향

> **계명대학교는 AI를 단순한 업무 효율화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 있는 판단과 문제 해결, 학습과 연구의 역량을 확장하는 도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AI는 인간의 사고와 책임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AI를 책임 있게 활용하여 대학 공동체의 협력적 통찰과 미래 역량을 확장하는 도구**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대학의 가이드라인은 사람의 비판적 성찰, 윤리적 판단, 공동 검증을 중심에 두고, AI는 이를 보조하여 교육에서는 배움의 깊이와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고, 연구에서는 새로운 통찰과 검증의 엄밀성을 강화하며, 행정에서는 공공성과 신뢰에 기반한 효율을 높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더 깊은 배움, 더 신뢰할 수 있는 연구, 더 책임 있는 행정**으로 이어지는 계명대학교의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는 본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AI를 무조건 허용하거나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이 아니라, 학문적 진실성, 연구의 신뢰성, 개인정보 보호, 행정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AI 활용 체계를 정착하고 구성원이 그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점검, 지원 체계를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목차

1. 목적 및 적용 범위 1
1.1 목적 1
1.2 적용 범위 1
1.3 적용 대상 1
1.4 적용의 기본 방향 1
2. 기본 원칙 2
2.1 인간의 판단과 최종 책임 2
2.2 투명성 2
2.3 정확성 및 비판적 검토 2
2.4 학문적 진실성 및 공정성 2
2.5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2
2.6 교육과 지원의 병행 2
3. 공통 용어 및 활용 기준 3
4. 교육 분야의 AI 활용 기준 5
5. 연구 분야의 AI 활용 기준 7
6. 행정 분야의 AI 활용 기준 10
7.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저작권, 연구윤리 12
8. 위반 의심 사안의 처리 및 책임 체계 14
9. 대학 차원의 운영 및 지원 체계 15
10. 참고자료 16

부록 1. 강의계획서, 과제 안내문, 연구 지도, 논문 작성 표준 예시 17
부록 2. 교내 배포용 포스터 예시 18

1. 목적 및 적용 범위

1.1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계명대학교 구성원이 AI를 교육, 연구, 행정에 활용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공통 원칙과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학은 AI를 학습 지원, 연구 보조, 행정 효율화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인간의 판단과 책임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가이드라인은 학문적 진실성, 연구윤리,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공정성, 저작권 준수 등 대학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1.2 적용 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대학 교육, 연구, 행정 전 영역에 적용합니다.

- **교육 영역:** 수업 운영, 강의자료 작성, 과제, 발표, 토론, 시험, 팀프로젝트, 캡스톤, 현장실습 보고서, 졸업논문, 학위논문 작성 지도 등
- **연구 영역:** 연구기획, 문헌조사, 초록 작성, 번역, 연구데이터 정리, 분석 보조, 논문 초안 작성, 학술발표 자료, 연구보고서 작성 등
- **행정 영역:** 회의자료, 안내문, FAQ, 보고서 초안, 보도자료 초안, 민원 응대자료, 각종 행정문서 초안 작성 등

1.3 적용 대상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교직원, 학생, 연구자, 조교 등 계명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입니다. 외부 연구원, 초빙 강사, 공동연구자, 수탁 수행 인력 등도 계명대학교 명의 또는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1.4 적용의 기본 방향

본 가이드라인은 구성원의 책임 있는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합니다. 단, 대학의 교육 목적, 연구의 신뢰성, 공식 문서의 정확성, 개인정보 및 기밀정보 보호 원칙이 항상 우선하며, 이와 상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2. 기본 원칙

> **핵심 원칙 요약**
>
> AI는 보조 도구이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모든 AI 활용 사실은 필요 범위에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산출물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검증 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2.1 인간의 판단과 최종 책임

AI는 보조 도구일 뿐, 판단의 주체가 아닙니다.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사고를 대신할 수 없고,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설계와 해석을 대신할 수 없으며, 행정에서는 담당자의 확인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산출물 내용의 정확성, 적법성, 윤리성 및 대외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2.2 투명성

구성원은 AI를 실질적으로 활용한 경우 활용 사실과 범위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AI 산출물을 본인의 창작물처럼 제출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되며, 대학이 제공하거나 운영하는 AI 기반 서비스는 AI 활용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거나 결과물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2.3 정확성 및 비판적 검토

AI는 허위 사실, 존재하지 않는 문헌, 왜곡된 통계 등을 산출할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AI의 산출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원자료와 출처를 직접 대조하고 교차 검증하여야 합니다. 공식 문서나 연구 논문에는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AI 산출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4 학문적 진실성 및 공정성

AI 활용이 대학의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은 AI 산출물을 본인의 고유한 성과물로 제출할 수 없으며, 연구자는 저자 표기 및 인용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AI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향을 조장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야 합니다.

2.5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외부 AI 서비스에 학생 개인정보, 교직원 인사 정보, 재무·계약 자료, 미공개 연구데이터, 연구 참여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업무와 연구에 AI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보안 수준, 데이터 처리 기준, 외부 전송 여부, 학습 반영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6 교육과 지원의 병행

대학은 윤리적 문제 예방이 제도적 기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구성원이 AI의 효용과 한계, 윤리적 쟁점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리터러시 교육과 실무 지침을 제공합니다.

3. 공통 용어 및 활용 기준

공통 적용 원칙

본 공통 용어와 AI 활용 판단 기준은 교육, 연구, 행정 전 영역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3.1 공통 용어

용어	정의
AI	텍스트, 이미지, 코드, 표, 음성, 영상 등을 생성, 요약, 분석, 변환하며 교육, 연구, 행정에서 산출물 작성과 의사결정 보조에 활용되는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AI 활용 공개	도구명, 사용 목적, 활용 범위, 수정, 검증 여부를 밝혀 작성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외부 AI 서비스	대학이 공식적으로 승인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제3자 제공 AI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입력 정보가 외부 서버로 전송, 저장, 학습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사전 검토 AI 도구	보안 수준, 데이터 처리 기준, 외부 전송 여부, 학습 반영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활용 기준에 부합한다고 본 AI 도구를 의미합니다.
사전 검토 환경	접근통제, 저장 방식, 로그 관리, 외부 전송 제한 등 보안 요건을 사전에 확인한 처리 환경을 의미합니다.
직접 수행	핵심 분석, 논리 전개, 해석, 결론 도출을 사용자가 스스로 수행하고 결과의 타당성까지 직접 확인, 책임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합성데이터	실제 관측치가 아닌 인위적 생성 데이터로서, 분석이나 예시 작성에 활용할 수 있으나 실제 데이터와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하여야 합니다.
미공개 연구데이터	연구참여자 개인정보, 계약상 비공개 자료, 특허 출원 예정 정보, 공개 전 실험·수집 데이터 등 외부 공개나 무단 입력 시 법적, 윤리적, 연구보안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연구 관련 정보를 의미합니다.
민감, 기밀정보	개인정보, 연구참여자 정보, 인사, 재무, 계약, 미공개 연구데이터, 징계, 감사 자료 등 외부 공개가 제한되고 유출 시 법적, 윤리적 위험이 큰 정보를 의미합니다.

도구 / 서비스 / 환경 구분 정리

- **도구**는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AI 기능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 **서비스**는 그 도구를 제공하거나 운영하는 외부 플랫폼, 시스템, API를 의미하며, 제3자 플랫폼은 **외부 AI 서비스**로 표기합니다.
- **환경**은 도구나 서비스가 사용되는 보안·운영 조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같은 기능이라도 어떤 서비스에서 어떤 환경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2 활용 판단 기준

빠른 판단 기준

- AI가 과제, 논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대신하고 있는가?
- 입력하려는 자료에 개인정보, 민감정보, 기밀정보가 포함되어 있는가?
- 산출물이 공식 문서나 대외 배포문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 연구윤리, 평가 공정성, 저작권 검토가 필요한가?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사용을 중단하거나 책임자 승인과 추가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공식 문서나 대외 배포문은 **발송·게시 전에 담당자 확인과 책임자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4. 교육 분야의 AI 활용 기준

수업 운영 간 필수 확인 사항

강의계획서에는 AI 활용 범위를 '허용 가능', '제한적 허용', '허용 불가'로 구분한 기준과 허용·금지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학생은 교원이 정한 기준과 허용 범위 내에서만 AI를 사용하여야 하며, 산출물 제출 시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4.1 교원의 기본 역할

교원은 교과목의 학습 목표와 전공 특성을 고려하여 AI 활용 범위를 '허용 가능', '제한적 허용', '허용 불가'로 나누어 설정하고, 각 범위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은 학기 초에 학생에게 상세히 안내하여야 하며, 조교나 팀티칭 교원이 참여하는 강좌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4.2 강의계획서 기재 원칙

모든 교과목은 강의계획서에 AI 활용 범위를 '허용 가능', '제한적 허용', '허용 불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AI 활용 공개 방식과 위반 시 처리 원칙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허용 여부 표기에 그치지 않고, 해당 기준을 설정한 교육적 취지를 함께 설명할 것을 권장합니다.

교육 분야 AI 활용 기준 운영표

아래 표의 주요 해당 활동은 예시로 제시한 것이며, **실제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은 교과목의 성격, 학습 목표,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여 교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AI 활용 구분	주요 해당 활동 (예시)	적용 원칙 (예시)
허용 가능	프롬프트 설계 실습, AI 산출물 비판 분석, 결과 비교·검증 활동, AI 협업 프로젝트 등	AI 활용 자체가 학습목표에 포함되는 경우로, 사용 과정과 검증 결과를 함께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 허용	아이디어 정리, 개요 작성, 문장 교정, 번역 비교, 참고자료 탐색, 코드 오류 점검 등	보조적 활용만 가능하며, 핵심 분석, 해석, 결론은 학생이 직접 수행하고 AI 활용 사실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허용 불가	시험, 현장 퀴즈, 서술형 시험, 개별 보고서, 핵심 분석 보고서, 논증 중심 과제, 구두발표 평가 등	직접 수행이 평가의 핵심인 경우로, AI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사고와 서술, 분석은 학습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4.3 수업·과제 활용 원칙

교육 분야에서의 AI 활용은 교과목의 학습 목표, 전공 특성, 평가 방식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교원은 각 교과목이 평가하고자 하는 핵심 학습성과를 기준으로 AI 활용 범위를 정하고, AI 활용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요소를 분명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4.4 금지 및 제한 사례

교원이 금지한 과제, 시험, 보고서, 발표문, 논술형 평가 등에 AI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AI가 생성한 문장이나 분석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거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존재하지 않는 문헌을 인용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학문적 진실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AI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합니다.

4.5 학생의 준수사항

학생은 교과목별 AI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AI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도구명, 사용 목적, 사용 범위, 수정 및 검증 여부를 과제물 또는 발표자료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프롬프트, 초안, 수정 이력, 검증 자료 등 과정 중심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 분야 AI 활용 공개 예시

- **과제물 표기 예시:** 본 과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사용 도구는 ChatGPT이며, 아이디어 정리와 문장 교정에 참고하였습니다. 핵심 분석과 결론은 작성자가 직접 수행하였고, 최종 내용과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 **발표자료 표기 예시:** 본 발표자료의 초안 정리와 문장 표현 점검에 생성형 AI를 참고하였습니다. 사실 확인, 자료 선택, 발표 내용 구성과 최종 설명 책임은 발표자에게 있습니다.
- **팀과제 표기 예시:** 우리 팀은 생성형 AI를 개요 정리와 표현 보완에 한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사용 범위와 수정 과정은 팀원들이 함께 검토하였으며, 최종 제출물의 정확성과 윤리적 책임은 제출자와 팀원에게 있습니다.
- **기재 항목 예시:** 도구명, 사용 목적, 사용 범위, 사용한 부분, 수정 여부, 사실 검증 여부.

4.6 평가 방식과 과정 중심 확인

교원은 AI 확산 환경에 대응하여 결과물뿐 아니라 수행 과정, 초안 변화, 구두 설명, 발표, 질의응답, 단계별 제출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실제 이해 수준과 직접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평가 방식이며, 평가 기준은 사전에 학생에게 충분히 안내되어야 합니다.

4.7 AI 탐지 도구 활용 원칙

AI 탐지 도구의 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그 결과만으로 학생의 위반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의심 사안은 문체 변화, 과정 자료, 설명 가능성, 인용 적정성, 구두 확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4.8 졸업논문, 캡스톤, 학위준비 과제의 유의사항

졸업논문, 캡스톤디자인, 포트폴리오, 학위 준비 과제 등은 학생의 종합적 역량을 확인하는 핵심 성과물이므로 일반 과제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도교원은 과제 성격에 따라 AI 활용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학생은 사용 범위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핵심 설계, 해석, 결론, 창작적 판단은 학생 본인이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주체	주요 역할
교원	교과목별 AI 활용 범위를 '허용 가능', '제한적 허용', '허용 불가'로 구분한 기준과 허용·금지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강의계획서와 과제 안내문에 반영하며, 과정 중심 평가와 검증 방식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학생	교과목별로 안내된 AI 활용 기준을 준수하고, 허용 범위 내에서만 AI를 활용하며, 활용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핵심 학습성과는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5. 연구 분야의 AI 활용 기준

연구윤리 유의사항

AI는 연구논문 또는 연구성과물의 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미공개 연구데이터, 연구참여자 개인정보, 민감, 기밀정보의 외부 AI 서비스 입력, 허위 자료 생성, 검증되지 않은 산출물의 사실화는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금지합니다.

연구윤리 관련 기관 원칙 참고

주요 기관은 공통적으로 다음 원칙을 제시합니다.

- **NRF(2024), NSF(2023)**: 연구 전 과정의 책임, 신뢰성, 재현 가능성은 연구자가 유지하여야 합니다.
- **COPE(2023)**: AI는 저자가 될 수 없으며 활용 사실은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 **NIH(2023), UNESCO(2021)**: 연구 설계, 해석, 결론과 같은 핵심 판단은 인간이 직접 수행하고 권리 보호와 책임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KISA(2025)**: 개인정보와 비공개 연구정보는 외부 AI 서비스 입력 대상이 아닙니다.

5.1 연구의 기본 원칙

연구문제 설정, 방법 설계, 자료 해석, 결론 도출과 최종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습니다. AI는 문헌 탐색, 문장 교정, 구조 정리, 코드 생성, 디버깅, 시뮬레이션 보조 등 보조 범위에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신뢰성, 재현 가능성, 인용 정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5.2 연구기획, 문헌조사, 요약, 번역 지원

AI는 연구 주제 탐색, 키워드 보완, 초록 요약, 번역 비교, 연구계획서 초안 정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헌명, DOI, 인용 정보, 통계, 정의는 연구자가 원문으로 다시 검증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참고문헌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5.3 데이터 생성, 정리, 분석 보조

AI는 데이터 정리, 프로그래밍 코드 생성, 디버깅, 수치 해석,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보조, 실험 데이터 전처리, 표, 그래프 초안 작성, 분석 절차 설명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료의 생성 경위, 전처리 기준, 변수 설정, 해석 논리, 통계적 의미 판단은 연구자가 직접 검토하여야 하며, 합성,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실제 관측값과 혼동되지 않게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5.4 논문, 보고서, 학술발표 자료 작성

AI는 문장 정리, 개요 구조화, 초안 편집, 발표자료 구성 보조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논문과 보고서의 핵심 주장, 방법론 설명, 결과 해석, 토론, 결론은 연구자가 직접 검토·수정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습니다. 제출 또는 발표 전에는 사실 오류, 과장 표현, 저작권 침해 요소가 없는지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5.5 저자성, 표절, 인용 및 공개 원칙

AI는 저자나 공동연구자로 표시할 수 없으며, 연구자는 학술지, 학회, 과제 지침, 지도교수 지시에 따라 AI 활용 사실을 적정한 범위에서 공개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문장, 데이터, 도표, 아이디어를 무단 활용하는 행위는 기존의 연구윤리 위반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AI 활용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5.6 지도교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의 역할

지도교수와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또는 연구과제 단위에서 AI 활용 범위를 '허용 가능', '제한적 허용', '허용 불가'로 구분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공동연구자는 데이터 처리, 문헌 작성, 번역, 그림 생성, 코드 작성 등 각 단계의 AI 활용 여부를 서로 공유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물 제출 전에는 검증 기준과 책임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5.7 학생연구, 학위논문, 연구실 운영

대학원생과 학부생의 연구 활동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 연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AI 활용 범위를 '허용 가능', '제한적 허용', '허용 불가'로 구분하여 명확히 안내하여야 하며, 학생연구자는 핵심 아이디어, 분석, 해석, 결론을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미확인 AI 산출물을 인용하거나 외부 AI 서비스에 민감한 연구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5.8 AI 활용 공개

연구자는 필요 시 논문 말미, 연구노트, 보고서 부록, 발표자료 등에 사용한 도구명, 사용 목적, 활용 범위, 검증 및 수정 여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학술지, 학회, 연구비 지원기관이 별도의 공개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합니다.

연구 분야 AI 활용 공개 및 표기 예시

학술지와 출판사마다 공개 위치와 허용 범위가 다르므로 최종적으로는 제출처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권고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에는 AI 도구 사용 내역을 각주, 참고문헌, 부록, 별도 항목 등으로 남길 것을 권장합니다.

- **논문 본문(방법 또는 별도 공개 문안) 예시:** 본 원고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문장 정리, 개요 구조화, 번역 비교를 수행하였습니다. 사용 도구는 ChatGPT이며, 사실 확인, 인용 검증, 해석, 결론 작성 및 최종 책임은 모두 저자에게 있습니다.
- **감사의 글 예시:** 저자는 원고의 문장 표현과 구조 점검을 위해 생성형 AI 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만 본문 내용의 정확성, 독창성, 인용의 적정성 및 연구윤리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습니다.
- **각주 예시:** 생성형 AI 도구 ChatGPT(OpenAI, 활용일 2026.06.25)를 사용하여 초록 문장 표현과 목차 초안을 점검하였으며, 사실 확인과 최종 수정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 **연구계획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표기 예시(한국연구재단 권고 참고):**
  OpenAI. (2026). ChatGPT (활용일: 2026.06.25) [대형언어모델]. https://chatgpt.com/
  활용 내용: 선행연구 검색어 정교화, 문장 표현 점검, 초안 개요 정리.
- **연구노트 기재 예시:** 도구명, 모델명 또는 버전, 사용일자, 사용 목적, 사용한 부분, 입력한 자료의 종류, 연구자의 검토, 수정, 검증 여부를 함께 기록합니다.

Elsevier, Springer Nature, Wiley, IEEE, APS 등은 공통적으로 AI를 저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공개 방식은 방법, 감사의 글, 각주, 참고문헌, 별도 신고 문항 등 제출처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비 신청서와 보고서류 작성 시에는 한국연구재단 권고 형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연구 분야의 AI 활용에 대한 '허용 가능', '제한적 허용', '허용 불가' 기준을 요약한 운영 기준입니다. 주요 해당 활동은 예시이며, 실제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 공개 방식은 연구의 성격, 자료의 민감도, 연구실 운영 기준, 학술지·학회·연구비 지원기관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 지도교수 또는 연구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AI 활용 구분	주요 해당 활동 (예시)	적용 원칙 (예시)
허용 가능	문헌 검색어 보완, 초록 요약, 번역 비교, 문장 교정, 코드 오류 점검, 참고문헌 형식 점검, 시각자료 설명 문구 정리 등	보조적 활용은 가능하나 사실 확인, 해석, 결론 도출과 최종 책임은 연구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한적 허용	데이터 처리 자동화, 비공개 자료의 제한적 분석, 비식별화 전처리 보조, 그림·도식·표 초안 생성, 연구계획서·과제제출용 문안 초안 작성, 코드 정리 및 형식 보완 등	연구책임자 또는 지도교수의 사전 검토와 승인 기준 아래에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자료의 민감성과 공개 범위를 함께 점검하여야 합니다.
허용 불가	허위 자료 생성 및 은폐, 존재하지 않는 문헌 인용, 미공개 연구데이터의 외부 AI 서비스 입력, 검증되지 않은 결과의 사실화 등	연구윤리와 신뢰성을 훼손하는 경우로, 이러한 활용은 허용하지 않으며 엄격히 금지합니다.

6. 행정 분야의 AI 활용 기준

행정 분야 운영 원칙

행정 분야의 AI 활용은 교육, 연구와 동일하게 '허용 가능', '제한적 허용', '허용 불가'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 보조적 업무의 효율화 범위에서는 활용할 수 있으나, **사실 확인과 최종 판단은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6.1 허용 가능 업무

회의자료, 안내문, FAQ, 보도자료 구조, 행사 문안, 반복 민원 응대 초안, 문서 요약 등은 AI로 초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가 사실관계와 표현 적정성을 최종 검토하여야 합니다.**

6.2 제한적 허용 업무

행정문서, 대외 안내문, 공지사항, 보도자료, 회의록, 질의응답 초안, 민원 응대 스크립트, 행사 안내 문안 등은 AI를 활용할 수 있으나, **발송 또는 공표 전 담당자와 책임자가 핵심 정보를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치, 날짜, 기관명, 법령명, 연락처, 예산정보, 부서명 등은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하며, 최종 응답과 설명 책임은 담당자에게 있습니다.

6.3 허용 불가 업무

인사평가, 징계 판단, 입학 및 장학 심사, 계약 타당성 판단, 예산 배정, 감사 대응, 민감 민원 처리 등 중대한 사안은 **AI에 의존하여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담당자의 직접 검토와 책임 있는 결재 절차가 우선됩니다. 특히 권리, 의무,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에서는 AI 결과를 단독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최종 판단과 결재를 AI에 위임해서도 안 됩니다.

6.4 행정 분야 추가 유의사항

회의 요약, 질의응답 초안, 민원 응대 스크립트, 행사 안내 문안 등에 AI를 사용할 수 있으나 최종 응답과 설명 책임은 담당자에게 있습니다. 개인정보, 내부 검토 내용, 비공개 정책자료, 계약 협상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보안성, 저장 방식, 외부 전송 여부, 학습 반영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행정 분야 대외공지용 AI 표시 문안 예시(필요 시 활용)

아래 문안은 행정 분야의 대외공지 작성 과정에서 AI 활용 사실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가 판단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공지문 예시: 본 안내문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담당 부서가 사실관계, 표현 적정성, 최신 기준을 최종 검토한 후 제공하였습니다. AI는 초안 작성과 문장 정리에 보조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최종 내용과 책임은 해당 부서에 있습니다.

민원 회신 예시: 본 회신 초안 작성에 생성형 AI를 참고하였으나, 민원 내용 검토, 사실 확인, 최종 답변 결정은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아래 표의 주요 해당 활동은 예시로 제시한 것이며, **실제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은 부서의 업무 성격, 대외 공개 여부, 정보의 민감도, 책임 범위 등을 고려하여 업무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AI 활용 구분	주요 해당 활동 (예시)	적용 원칙 (예시)
허용 가능	안내문, FAQ, 행사 소개, 회의자료, 공개 정보 기반 정책 요약, 행사 일정 안내, 반복 민원 응대 초안, 웹페이지 공지 초안 등	초안 작성 보조로 활용할 수 있으나, 최종 배포 전에는 담당자가 사실관계와 대외 공개 적합성을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한적 허용	행정문서, 대외 안내문, 공지사항, 보도자료, 회의록, 질의응답 초안, 민원 응대 스크립트, 행사 안내 문안, 설명자료 초안, 부서 검토용 응답 문안 등	활용은 가능하나 발송 또는 공표 전 담당자와 책임자가 핵심 정보를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 기관명, 법령명, 연락처 등은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허용 불가	인사, 평가, 징계, 입학, 장학, 예산, 계약, 감사, 법률 판단 등 권리, 의무, 평가, 재정, 대외 책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	최종 판단과 결재는 사람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AI에 위임하거나 단독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7.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저작권, 연구윤리

7.1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보호

학생 성적, 출결, 상담 기록, 장애 및 건강 정보, 교직원 인사자료, 연구참여자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는 외부 AI 서비스 입력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제한은 계명대학교에 한정된 조치가 아니라, 국내외 대학,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는 책임 있는 AI 활용의 기본 보호 원칙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불가피하게 AI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비식별 정보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안성, 저장 방식, 외부 전송 여부, 학습 반영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한 환경에서만 제한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7.2 비공개, 기밀 자료의 보호

미공개 연구자료, 계약 문서, 예산 자료, 감사 자료, 내부 검토 문서, 회의 비공개 안건, 대외 협상 자료 등은 승인되지 않은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구성원은 사용 도구의 저장 방식, 학습 반영 여부, 접근통제 구조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사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7.3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준수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같은 조 제2호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문장, 이미지, 코드, 표, 번역문 등은 그 자체만으로 저작권 보호나 권리 귀속이 자동으로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저작물성이나 권리 범위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가 프롬프트 설계, 결과 선택, 배열, 수정, 편집, 검증 등에서 실질적인 창작적 기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호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원은 **AI 산출물을 곧바로 자신의 독점적 창작물로 전제하여 사용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도 안 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편집, 전재하거나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결과물을 배포하여서는 안 되며, 연구와 교육 자료 작성 시에는 인용과 출처 표시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외 배포, 논문 제출, 보고서 수록, 홍보물 제작 전에는** 기존 저작물과의 유사성, 사용한 AI 서비스의 이용약관, 재이용·재배포 가능 범위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포함된 범위에서 저작권 등록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대학 구성원은 AI 산출물의 이용과 공개 전에 권리 관계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7.4 연구윤리 및 공정성 확보

AI 활용은 연구부정행위, 학업부정행위, 평가 불공정, 편향 강화, 차별 조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구성원은 AI가 제시한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편향과 오류 가능성을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대체 수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아래 표는 정보의 공개 수준에 따라 외부 AI 서비스 또는 사전 검토 AI 도구에 입력, 분석, 요약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하기 위한 실무 판단 기준입니다. 구성원은 AI를 활용하기 전에 해당 정보가 어느 공개 수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후, 그 기준에 맞는 처리 원칙과 승인 절차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정보 공개 수준	예시	AI 활용 및 처리 기준
공개	대외 공지문, 보도자료, 공개 통계, 홈페이지 게시 정보, 공개 보고서, 배포용 안내자료, 행사 안내문	외부 AI 서비스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개 자료에 한하여 사용하고, 출처 확인, 최신성 점검, 내용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내부 공유	내부 운영 기준, 비민감 수업자료, 회의자료 초안, 내부 검토용 문안, 부서 공유자료, 공개 전 초안	사전 검토 AI 도구 또는 사전 검토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 전송 여부와 공개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제한정보	학생·교직원 식별정보, 출결·상담 기록, 민원 처리 내용, 내부 연락처, 제한 공개 자료, 검토 중인 명단, 내부 제출 서식	원칙적으로 비식별화 후 활용하여야 하며, 사전 검토 AI 도구 또는 사전 검토 환경에서 책임자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식별화가 어렵거나 승인 절차가 없는 경우 활용할 수 없습니다.
민감정보·기밀정보	미공개 연구데이터, 인사평가, 징계자료, 계약자료, 감사자료, 예산 검토자료, 심사자료, 협상 문안, 법률 검토자료, 비공개 심의자료	원칙적으로 외부 AI 서비스에 직접 입력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비식별화, 사전 검토 환경, 책임자 승인, 최소 입력 원칙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8. 위반 의심 사안의 처리 및 책임 체계

8.1 기본 원칙

AI 활용 관련 위반 의심 사안은 사실 확인, 절차적 공정성, 소명 기회 보장, 비례적 조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순 의심만으로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안 되며, 관련 규정과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8.2 교육 분야 처리

교원은 과제 지침, 초안, 발표 내용, 구두 설명, AI 활용 공개 내역,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필요 시 학생에게 설명 및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후속 조치는 학칙과 교과목 운영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8.3 연구 분야 처리

연구 분야의 위반 의심 사안은 연구책임자, 학과, 연구윤리 담당 부서, 관련 위원회가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데이터 처리, 인용 적정성, 저자성, AI 활용 공개 여부, 외부 유출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노트, 원자료, 수정 기록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8.4 행정 분야 처리

행정 문서와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위반 의심 사안은 소속 부서의 관리자와 관련 부서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오기, 허위정보, 정보유출, 사전 검토 없이 사용한 AI 도구, 부적절한 대외 발송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8.5 책임 체계

AI를 활용한 결과물의 최종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대학은 조직 차원의 예방과 교육 책임을 부담하며, 교원, 연구책임자, 부서장은 소속 구성원에게 필요한 기준과 안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01

사안 접수 및 사실 확인

제출물, 사용 내역, 관련 기록을 확인하여 기초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02

자료 검토 및 소명 기회 부여

당사자 설명, 과정 자료, 초안, 근거 문서를 함께 검토하여 소명 기회를 보장합니다.

03

규정 검토 및 판단

학칙, 연구윤리, 행정 기준과 비교하여 위반 여부와 책임 범위를 종합 판단합니다.

04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

시정 조치, 교육, 재발 방지 안내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에 반영합니다.

9. 대학 차원의 운영 및 지원 체계

9.1 공통 기준의 유지

대학은 교육, 연구, 행정 전 영역에 적용 가능한 공통 원칙을 유지하되, 단과대학, 학과, 연구실, 부서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 지침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기준은 본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과 상충해서는 안 됩니다.

9.2 교육과 안내

대학은 교원, 학생, 연구자, 직원이 AI의 효용과 한계를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 안내자료, 사례집, 실무 설명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학문적 진실성, 연구윤리,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저작권, 행정책임, 프롬프트 설계와 검증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9.3 AI 도구 및 처리 환경 관리

대학은 필요시 보안 수준, 데이터 처리 기준, 외부 전송 여부, 학습 반영 여부, 저장 방식, 접근권한 등을 검토하여 활용 가능한 AI 도구와 처리 환경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은 개별 AI 도구와 처리 환경의 특성 및 위험 수준을 명확히 이해하여야 하며, **고위험 업무에는 보안 요건을 충족한 환경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전 검토 AI 도구**는 실제로 사용하는 AI 기능 또는 서비스 자체를 의미하며, 보안 수준, 데이터 처리 기준, 외부 전송 여부, 학습 반영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한 도구를 말합니다. **사전 검토 환경**은 그 도구를 안전하게 운영하거나 민감정보를 제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보호된 작업 환경을 의미합니다.

AI 도구 및 처리 환경 관리 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투명성 고지 방식, 입력 가능 정보의 범위, 로그 및 기록 관리, 안전성, 신뢰성 확보 방안, 사고 대응 체계를 함께 점검하여야 합니다.

9.4 사례 축적과 공유

대학은 우수 활용 사례와 주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 공유하여 구성원의 판단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실제 사례의 축적은 AI 활용 기준의 현실성을 높이고, 반복되는 오류와 위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9.5 정기 점검과 개정

AI 기술과 규제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므로, 본 가이드라인은 관련 법령, 사회적 기준, 대학 운영 경험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개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하위 기준, 개인정보 보호, 연구윤리, 정보보안 관련 제도의 변경 사항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시범 운영, 의견 수렴, 위원회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0. 참고자료

> **본 가이드라인 설계를 위한 국내외 정책 검토 방향**
>
> 본 가이드라인은 해외, 국내 주요 대학, 국제기구, 연구윤리 관련 기관의 공개 정책 문서를 종합 검토하여 설계하였습니다. **국내 법률과 계명대학교의 관련 규정·지침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해외 선행 원칙은 참고**하여 우리 대학의 교육, 연구, 행정 환경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계명대학교 학칙, 연구윤리 규정,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규정, 관련 법령과 지침**을 우선합니다.

10.1 국내 법령 및 정책 기준

- 대한민국(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2025. 1. 21., 시행 2026. 1. 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관련 안내

10.2 국내 대학 및 기관

- 서울대학교(2026), 서울대학교 AI 가이드라인
- 고려대학교(2025), AI 활용 가이드라인
- 연세대학교(2025),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안내
- 중앙대학교(2023, 2024 개정),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 한국연구재단(2024), 책임 있는 AI 도구 활용 권고
- KISA(2025), AI 서비스 개인정보 처리 안내
- 한국저작권위원회(2025. 6.),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 POSTECH 도서관 LibGuide(2025. 4. 기준), 출판사별 저널 출판 시 생성형 AI 정책

10.3 해외 대학 및 국제기구

10.3.1 해외 대학

- Harvard University, AI Guidelines
- Columbia University, AI Policy
- Duke University, AI Policies in Syllabi
- University of Oxford(2026), Guidance on Safe and Responsible Use of GenAI

10.3.2 국제기구, 공공기관, 연구윤리 기관

- UNESCO(2021),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I
- COPE(2023), Guidance on AI and Authorship
- NIH(2023), Artificial Intelligence Resources and Policy
- OECD(2019, 2024 개정), AI Principles
- NIST(2023),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Framework (AI RMF 1.0)

부록 1. 강의계획서, 과제 안내문, 연구 지도, 논문 작성 표준 예시

부록 1-1. 강의계획서 표기용 문안

'허용 가능' 교과목 예시: 본 교과목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고 학생의 AI 활용 역량을 함께 함양하는 것을 학습목표에 포함합니다. 학생은 AI를 활용한 탐색과 검토를 통해 학습을 심화할 수 있으며, 필요시 프롬프트, 수정 과정, 검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한적 허용' 교과목 예시: 본 교과목은 아이디어 정리, 개요 작성, 문장 교정 등 제한적 AI 활용을 허용하되, 그 범위는 담당교수가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핵심 분석과 결론은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과제 말미에 사용 도구와 범위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허용 불가' 교과목 예시: 본 교과목은 학습자의 직접 수행과 독립적 사고를 평가하기 위하여 AI 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핵심 학습성과를 학생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므로, 과제, 시험, 보고서, 발표문 작성에 AI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록 1-2. 과제 안내문 예시

본 과제는 AI의 제한적 활용을 허용합니다. 학생은 자료 탐색, 개요 작성, 문장 교정, 코드 오류 점검 등 보조적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핵심 분석, 해석, 결론은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출물 말미에는 사용 도구, 활용 범위, 검증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록 1-3. AI 활용 사실 명시 예시

본 과제는 생성형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여 아이디어 정리, 개요 구성, 문장 표현 개선 등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용한 도구는 ChatGPT이며, AI가 제시한 내용은 작성자가 직접 검토, 수정하였습니다. 최종 제출물의 내용, 정확성 및 윤리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부록 1-4. 연구 지도 및 연구실 운영 문안

연구실 기본 운영 문안

연구실 구성원은 문헌 탐색, 번역 비교, 문장 교정, 코드 점검 등 제한적 범위에서만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문제 설정, 방법론 설계, 데이터 해석, 결론 도출, 저자 판단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미공개 데이터와 민감정보는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논문 작성 지도 문안

학위논문 또는 학술논문 작성 시 AI를 활용한 경우에는 사전에 지도교수와 협의하고, 사용 범위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논문의 핵심 주장과 해석은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AI 산출물을 참고문헌이나 사실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부록 2 | POSTER 01

교육 분야 포스터

EDUCATION 교육

수업, 과제에서의 책임 있는 AI 활용

학생은 교원이 정한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허용된 범위에서 AI를 적극 활용하여 학습 효과와 문제 해결 역량을 높입니다.

강의계획서와 과제 안내문의 기준이 최우선입니다.

- ✓ **기준 먼저 확인**
  수업과 과제에서 AI 활용이 '허용 가능', '제한적 허용', '허용 불가' 중 어느 기준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 **허용 범위만 사용**
  아이디어 정리, 개요 작성, 문장 교정 등 수업에서 허용하는 범위만 사용합니다.
- ✓ **핵심 내용은 직접 작성**
  분석, 해석, 결론, 주요 논증은 반드시 본인이 수행합니다.
- ✓ **출처와 사실 검증**
  AI가 제시한 문헌, 통계, 사례는 원자료와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 ✓ **사용 내역 표시**
  수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도구명, 사용 목적, 사용 범위, 수정 여부를 과제물에 기재합니다.
- ✓ **과정 자료 보관**
  필요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 초안, 수정 이력을 보관합니다.

즉시 중단 기준

AI가 과제의 핵심 내용을 대신 작성하거나 금지된 평가에서 사용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합니다.

직접 수행 · 투명한 공개 · 공정한 평가

부록 2 | POSTER 02

연구 분야 포스터

RESEARCH 연구

연구 성과를 높이는 책임 있는 AI 활용

연구자는 AI를 적극 활용하여 연구의 효율과 성과를 높이되, 핵심 판단과 윤리 기준은 직접 책임집니다.

미공개 데이터와 민감정보는 외부 AI 서비스 입력 금지 대상입니다.

- ✓ **핵심 판단은 연구자 책임**
  연구문제 설정, 방법론 설계, 해석, 결론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합니다.
- ✓ **민감정보 입력 금지**
  미공개 데이터, 참여자 정보, 기밀자료는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 ✓ **문헌, 통계, 코드 재검증**
  AI가 제시한 참고문헌, 수치, 분석 결과는 직접 교차 검증합니다.
- ✓ **제한적 허용은 사전 검토**
  고위험 자료나 자동화 분석은 책임자 또는 지도교수와 사전 협의합니다.
- ✓ **사용 범위 투명 공개**
  도구명, 사용 목적, 범위, 수정 여부를 논문 또는 보고서에 명시합니다.
- ✓ **AI는 저자가 아님**
  저자성은 인간 연구자에게만 부여되며, AI는 저자나 공동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연구윤리 경고

허위 자료 생성, 존재하지 않는 문헌 인용, 데이터 위조, 변조는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 · 재현 가능성 · 연구윤리 준수

부록 2 | POSTER 03

행정 분야 포스터

ADMINISTRATION 행정

행정 업무의 책임 있는 AI 활용

행정에서는 AI를 적극 활용하여 시간과 효율을 높이되, 사실 확인과 최종 판단은 담당자가 직접 수행합니다.

행정문서, 공지, 민원 회신은 발송 전 최종 확인이 필수입니다.

- ✓ **다양한 업무에서 보조 도구로 활용**
  회의자료, 안내문, FAQ, 행사 소개 등 반복 문안 작성 보조에 활용합니다.
- ✓ **사실관계 재확인**
  수치, 날짜, 부서명, 법령명, 연락처, 일정은 담당자가 직접 검토합니다.
- ✓ **중대한 판단은 직접 수행**
  인사, 징계, 평가, 계약, 예산, 감사 관련 판단은 AI에 맡기지 않습니다.
- ✓ **비공개 정보 보호**
  민원 내용, 인사자료, 계약자료, 내부 검토문서는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 ✓ **보안 검토 후 사용**
  보안 수준, 데이터 처리 기준, 외부 전송 여부, 학습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업무에 사용합니다.
- ✓ **발송 전 최종 결재**
  대외 발송 문서와 공식 응답은 책임자 검토와 결재 후 확정합니다.

보안 유의
최소 입력 원칙을 준수하고, 보안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보고 및 사용 중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정확성 · 보안성 · 행정 책임 확보